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호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호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항공서비스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35,996편의 항공기가

520만 여명의 여객과 21만 2천여 톤의 화물을 처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77,117편의 항공기가

1,320만 여명의 여객과 39만 4천여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항공수요가 성장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항공 산업의 성장과 국가 간 교류 확대의 이면에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 구로를 포함하여

양천과 강서, 금천 등의 지역에서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여객 수요 대응을 위한 항공기 증편에 따른 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수익으로 환원되지만, 항공기 소음 증가에 따른 피해는 서남권 지역의 주민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대안 속에서도 피해에 따른 손해와 편익에 따른 수익 배분의 불합리한 구조는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 따라서 동 결의안은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고,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